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23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2일 뉴욕증시는 부시 행정부의 자동차업계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과 도요타 자동차의 영업적자 소식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장대비 59.42p(0.69%) 하락한 8,519.69에 장을 마감. 자동차업계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GM과 포드가 각각 21.6%, 12.2% 급락.

S&P500 지수는 전장대비 16.25p(1.83%) 떨어진 871.63을 기록.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31.97p(2.04%) 떨어진 1,532.35에 마감.

이날 증시는 미국 자동차업계 구제안이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기업실적 전망으로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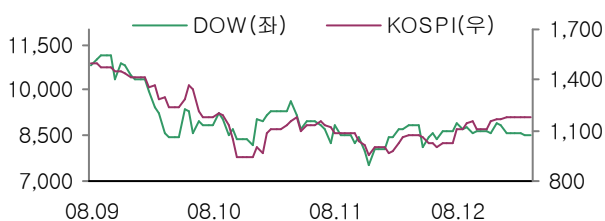
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알코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, 알코아의 주가는 4.85% 하락. 미국 2대 제약 유통업체인 월그린은 1/4분기 순익이 전년동기대비 10% 감소하였다는 소식에 5.79% 하락.

또한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'매수'에서 '중립'으로 낮춘 국물업체인 몬산토는 8%가 넘게 하락하였으며, 세계 경기침체와 엔고로 인하여 1,500억엔의 영업적자를 예상한 토요다로 인하여 투자심리 위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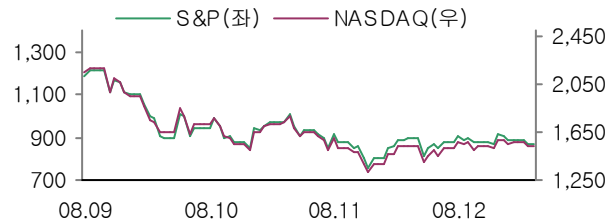
연말 쇼핑시즌을 맞은 가운데 소비둔화 우려와 경기후퇴 우려로 인하여 소비관련 종목과 에너지주들이 약세를 기록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519.77	-0.69	-0.52	-4.64	5.88	-25.19	-36.66
S&P(좌)	871.63	-1.83	0.35	-4.18	8.95	-30.55	-41.28
NASDAQ(우)	1,532.35	-2.04	1.59	-2.51	10.69	-32.61	-43.08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